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청소년의 일과 삶!  
지역에서 내-일을 그린다

# 내-일방방 프로젝트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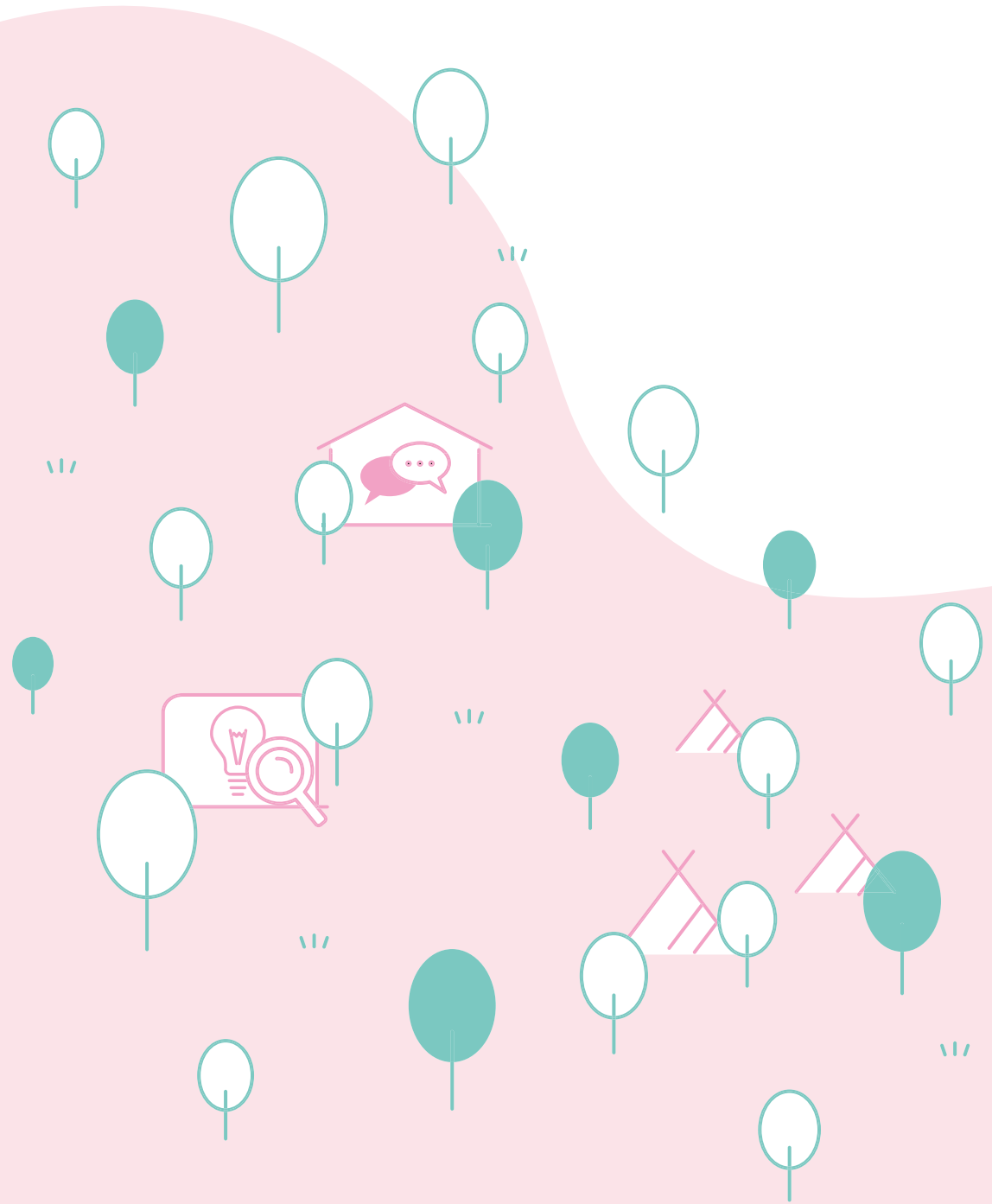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장수 YMCA 전주 YMCA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http://www.makehope.org>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 전주YMCA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원왕구로 277  
Tel. 063-272-4466  
Fax. 063-272-4467

**감수** 희망제작소

**발행**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희망제작소, 전주 YMCA, 진안 교육협동조합, 장수 YMCA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행한 내용입니다.

## 몸 풀기

그대가 볼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가 들을 때 그것은 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손으로 잡을 때 그것은 잡히지 않는다.

배움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밝혀 보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아라.

그 대신,  
몸을 풀고 그대 마음으로 하여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여라.  
그대의 인식과 직관으로 하여금  
그대를 안내하게 하여라.

그대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모르는 것에 자신을 열어놓고,  
신비로운 것 앞에서 편히 쉴 수는 있다.

모든 사물의 근원에 깨어 있을 때  
그대는 지혜의 심장을 안다.

- 파멜라 메츠 슘, 이현주 옮김

개요 . . . 2

배경과  
취지 . . . 4

핵심  
가치 .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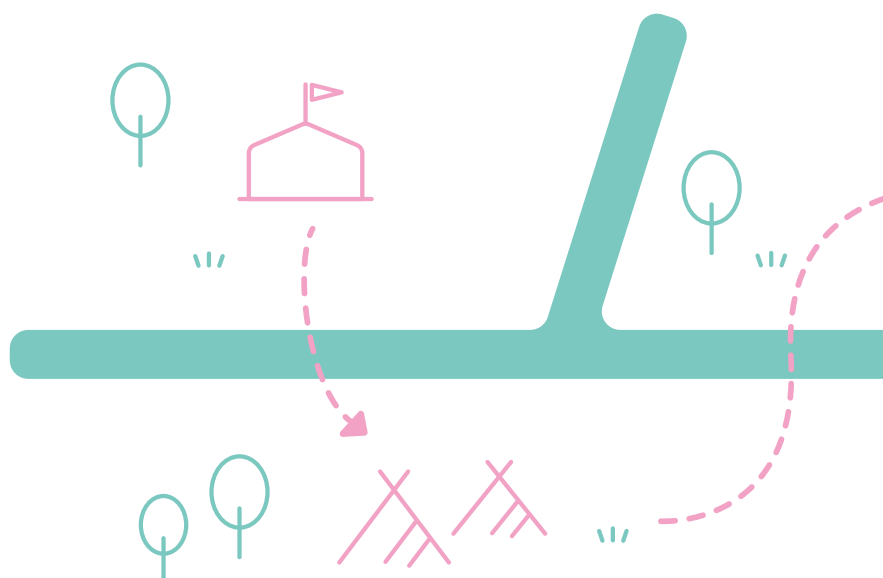
세부  
사업  
내용 . . . 7

첨부  
자료 . . . 24

# 청소년의 꿈, 일, 삶을 말한다

## 1단계 상상학교

진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키워주는 사람책 대여와 강연



## 2단계 상상캠프

내-일상상상프로젝트의 오프닝 캠프, 내-일 찾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참여자 간 교류

#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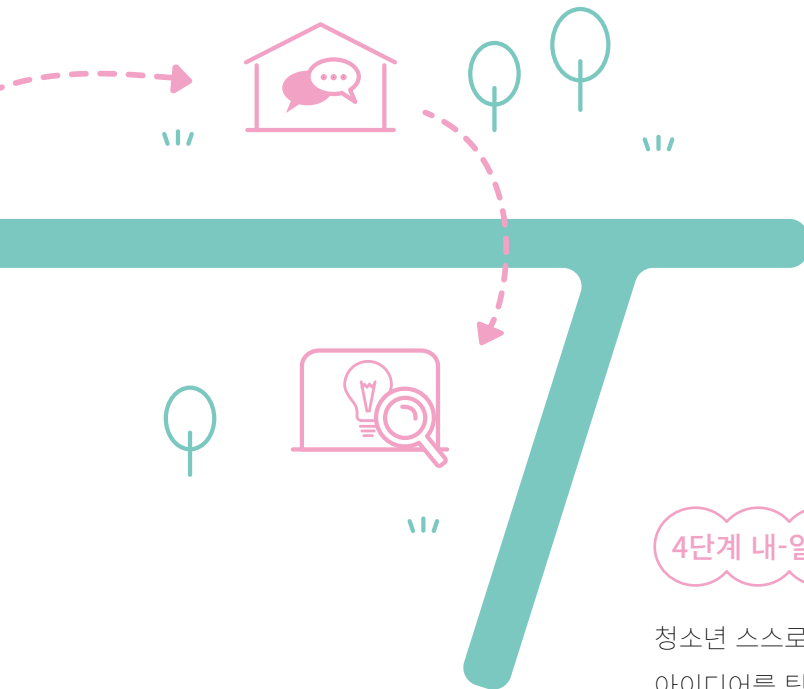
나의 일(my job)과 삶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꿈이 있는 내일(tomorrow)을 말합니다. 꿈꾸는 청소년,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상상하며 도전해봅니다. 과정속에서 자치와 성찰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방방 프로젝트

###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

청소년 일과 노동의 의미 되살리기, 창의적 직업체험을 위한 논리, 사고의 힘을 키우는 강연과 워크숍 진행



### 4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청소년 스스로 필요한 일감을 발굴하여 기획한 아이디어를 팀별로 실행하고, 지역사회-내 일(my job)-지향(vision)을 탐색하고, 상상하는 창직 프로젝트

# 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가?

## 1 청소년 진로 교육의 방향

진로는 삶의 방향을 말한다.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살아나가는 길을 뜻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반면 직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통해,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삶을 실현하는 것이 진로 직업 교육의 핵심이다. 삶과 일을 일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진로 직업 교육의 대부분은 직업 관련 내용에 집중되어 있기에, 삶의 자기 중심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노동과 삶이 일치하며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노동 속에서 삶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직업(일)을 삶의 방편으로 산다면 이는 사회와 개인의 불행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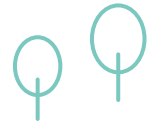
- 알베르 카뮈

이에 청소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삶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청소년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협동학습을 통해 사회성과 노동에 대한 자기 주도적 관점을 일깨우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람책을 통한 상상력 키우기, 나의 삶에 대한 학습 진지한 성찰, 노동(직업)에 대한 의미를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일과 지역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성찰하며 진행하는 과정을 하고자 한다.

## 2 청소년 진로교육,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

미래학자들은 20년 후 현존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전망하나 현재 청소년 진로교육은 대부분 주류 일자리에 청년 편입을 유도하고 체험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유학기제 도입과 더불어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체험에 집중하며, 자유학기제 역시 지역의 인프라 정도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

4차 혁명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미래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중되고 있다. 인간 중심, 개인별 자기 정체성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 3 지역(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청년층 감소 위기와 청년실업 해결의 가능성 실험

한국사회의 노령화와 더불어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지역의 미래기반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 삶의 현장을 지역에서부터 학습하며 제공받아야 한다. 내·일 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익숙한 지역사회를 토대로 지구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개인의 삶이 소중함을 일깨우는 과정을 학습한다.

청년보다 이른 청소년기에 삶과 일에 대한 주체적 경험을 하고, 다양한 상상을 통해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사회와 함께 만드는 훈련을 한다.

### 4 노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청소년 노동은 의식주 중심이 아닌 삶을 실현하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자각과 실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에 상상하며 즐길 수 있는 노동을 바라보는 진로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공동체가 노동과 인권에서 대한 학습을 통해 노동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사회적 행위를 인식케 하고, 노동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스스로 실험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 참고 :

현 사회의 청소년들이 진중적 특성(현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의 노동의 권리, 미래세대 주역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배움의 권리)을 갖고 있어, 청소년들이 노동할 권리와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개개인에게는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한국사회에 경제적 불평등, 높은 교육비, 사회복지체계의 미비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의 구조적 문제에 순응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강요한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비추게 하고, 노동의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일이 즐겁다면 인생은 극락이다. 일이 괴롭다면 인생은 지옥이다.

- 고리끼, 러시아 소설가



## 1 청소년! 인간으로서 삶의 힘 키우기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와 삶을 준비하는 청소년.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며, 지혜를 깨닫는 기쁨을 얻는 시기, 창조적 학습과 상상력이 결합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젝트이다.

청소년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한 인간으로서 창조적 자유, 자치의 힘을 키운다. 이 자치는 방만한 자치가 아니라 스스로 양심과 이웃과 사회 문화 경제적 과제에 얽혀 있는 책임 있는 자치를 말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 스스로 고민과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 문화적 관계를 통찰할 힘을 키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2 개인과 공동체! 상상의 미래 이루기

혼자 하면 꿈일 수 있지만 여럿이 하면 현실일 수 있다.

진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진부한 근대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지역사회, 또래 청소년들과 협동과 연대를 통해 상상하며 자아와 공동체의 욕구를 발견하고 기획하여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내적 힘(empowerment)을 개인과 공동체가 형성한다.

내가 아는 세계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작은 것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는 것을 알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이웃린이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처음으로 한 것이 고산고 멘토링 사업이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하니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한 끼의 밥이 되는 빵을 만들고 그 수익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옆집 사는 삼촌, 이모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마을이 되고, 아이들이 되길 기대한다.

“너희의 나이가 16~17살 너희 나이 자체가 가능성이다. 너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재밌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꿈꾸는 꿈을 쫓으면 좋겠어. 지금의 상황에 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 국태봉 (이웃린 영농조합), 사람책 이야기 중에서

## 1단계 상상학교

### 1 목표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우며, 청소년 스스로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

### 2 진행 내용

1부 강연 : 변화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교육

2부 사람책 : 사회에 필요한 일을 기획하여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책

설명회 : <내-일상상프로젝트> 및 <재능탐색워크숍> 소개와 참여 안내

### 3 기획단계별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대상** 중 3 이상의 청소년

**방법** 학교 섭외 또는 자발적 참여 신청자 모집

**주의** 만약 학교에서 비자발적인 대상으로 상상학교를 진행시에는 가급적 고등학생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중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진로에 대한 깊이 있고 진지한 고민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에서 진행 시** 해당 학교 섭외 공문, 진로교사와 교장 면담, 일시 및 장소 확인

**장소** 강당(오리엔테이션과 특강 장소로 사용), 각 교실(사람책 수만큼 확보)

**일정** 학교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최소한 2교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의** 사람책별로 음악실, PPT와 음향, 넓은 공간 등 필요에 따라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 밖에서 진행 시

- 장점** 한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관심 있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고루 기회를 줄 수 있다.  
스스로 참여한 청소년들이라 배움과 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학교를 내용적으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할 수 있다면 학교 밖에서 하라!
- 단점** 참여 청소년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노력과 힘이 든다.  
시간과 예산 (공간 사용 임대료 추가)이 많이 든다.
- 주의** 학교의 시험일정, 행사일정, 방학 등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좋은 시점에 진행하여야 한다.  
한 건물 안에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강의실과 여러 명의 사람책 진행을 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의 선정 사람책과 상상학교 홍보를 부모가 볼 수 있는 공간에도 올려야한다.  
여건이 되면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고,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시민사회운동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사람책을 섭외한다.

직업에 대한 정보전달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더 잘 나온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전문직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길 바란다. 지역에서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한 신념, 즐거움, 행복, 나눔, 비전이 있는 사람책을 기준으로 삼는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 직종이 차이가 있다. 욕구파악을 해서 그 분야의 사람책을 섭외하는 것을 권장하나, 요즘은 학교 자체에서 직업특강이나 강사초빙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겹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하며, 직업강의와 상상학교에 대한 차이를 학교와 사람책으로 초청된 분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람책 선정기준은 별도 첨부



진행자와 미리 사전모임을 갖고 상상학교에 대해 흐름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진행자를 한 명씩 배치해서 각 사람책 진행을 돕는 역할과 기록 등을 담당하게 한다. 참석자 확인, 간식 나눔, 사람책 소개, 사람책 전달 내용정리, 질문과 응답, 사진찍기, 마무리 등 진행자가 할 일이 꽤 많다.



사람책과 주제를 포스터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 학교의 경우 게시판에 부착,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 사람책별 소개피켓을 만들어 미리 전시하여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하고 자신의 사람책을 직접 고르도록 한다.

**주의** 학교에서는 사람책을 홍보하고 고르게 하는 과정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꼭 줄 수 있도록 학교와 조율이 필요하다.



15명 정도의 그룹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교실 수업방식의 구조는 일방적인 전달과 강사에게만 집중되어 상호 토론이 원활하지 않다.

**주의** 도시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 그룹당 30명씩 진행하면, 결국 소규모 강의처럼 되어 사람책의 의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청소년 당사자 평가 또는 소감을 받는다.

사람책 열람이 끝난 후 실무자와 사람책 전체가 모인 가운데 꼭 평가 나눔을 한다.

## 4 상상학교 실무 평가

관내 학교에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서 의향이 있는 장계공고와 백화여고, 1318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기 삶과 지역에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구조와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가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육의 획일성과 통제, 수동적인 분위기가 많았고 공부가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불안감을 목격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하는 점이 상상학교를 기획하는데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계공고는 ‘저항하는 삶의 방식’의 직설적인 내용으로 상상학교를 진행했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여고에서는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다양한 실험결과와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주었고 어쩔 수 없이 놓지 못하는 공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편한 방법으로 공부와 삶을 살아가자는 내용으로 전달하였고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장계공고에서는 사람책은 진행하지 않았고 백화여고에서는 별도의 날을 잡아 사람책을 진행하였는데 원형배치, 사람책 강사와 사전 소통 및 조율, 학교 교사들과 소통, 지역의 자원들과의 수차례 논의 등으로 통해 사람책 강사와 청소년 간에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318센터에서는 중학생들이 주요대상이었고 자아정체성의 혼란기라는 자체판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일정과 강사를 섭외하였습니다. 내용이 좋았기에 장점도 있었지만, 청소년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 장수YMCA 이재명

## 5 상상학교 운영 사례

예시 상상학교 학교 제출 계획서

### 목표 및 기대 효과

공동체적 자아 발견을 통한 진로의식 변화  
 지역사회 미래세대의 삶 기반 마련과 활력 증진  
 청소년 창작활동지원을 통한 ‘진로’에 대한 통합적 사고 증진



///

### 사업 개요

**사업명**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  
**일정** 1학년 - 2017.05.29(월) 14:30~16:30 \*6~7교시 / 300여명  
 2학년 - 2017.06.12(월) 14:30~16:30 \*6~7교시 / 300여명  
**대상** 전주공고 1~2학년 600 여명

## 상상학교 사람책 명단

명	이름	소속	제목
1	설재우	서촌연구소, '서촌방향'저자	나를 키운건 8할이 골목이었다
2	김철연	마더뮤직	내가 나를 믿고 전진하는 힘
3	송재환	이름없는학교 교장	나눔을 약속해주세요
4	장재영	세계 60개국 방랑자, 순창 방랑싸롱 무슈	내 인생의 장르는스펙타클 파란만장 액션 코믹 방랑기
5	장윤영	전북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 '천년누리전주빵'대표	서로가 행복짐을 알려주는 건강한 복지
6	김대석	전북대 기계공학과 교수	먼저 두들겨라 모든게 바뀌고 재밌어진다
7	김정민	서울특별시 언론홍보 담당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8	김병철	디자인회사 '컨티뉴'대표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디자인으로 말한다
9	장미경	전주시민미디어 강사, 공동체가게 '널리널리홍홍'대표	근근히 살다보니 끈끈해지더라
10	소영식	'스페이스모 건축사무소'소장, ?+ing 일상문화연구소 '모'대표	
11	임상훈	전북CBS 기자	똑똑하고싶어 택한 기자, 따뜻함의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12	이진우	'매거진군산'발행인 호원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지역에 생명을 불어 넣는 일

### 학교 협조 요청사항 확인

전체강당, 교실확보 12개, 학생모임, 마이크, 빔프로젝트 (교실별), 사람책 및 실무자 공간, 학생 스스로 원하는 상상학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및 명단 작성

### 상상학교 진행 관련 기관 역할

사람책 관련 포스터를 현관에 미리 부착 (구체적으로 기록)

행사 일주일전부터 현수막 교문 게첨, 배너 설치

상상학교 관련 강사, 사람책 섭외, 연락, 평가 진행

## 2단계 상상캠프

### 1 기획의도

기계가 대신 일 해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상상캠프에서는 청소년이 각자 갖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얘기해보고, ‘직업’이라는 특정 단어에서 벗어나 N개의 일들을 상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또한, 2, 3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지역이 함께 모여 지역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친목을 다지는 등 참여자 네트워크를 꾸리고자 한다.

상상캠프에서는 1단계 상상학교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내 몸 드로잉’, ‘휴먼라이브러리’, ‘동상이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 몸 드로잉’은 본인이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휴먼라이브러리’와 ‘Being Human library’에서는 11인의 휴먼라이브러리와 소통하고, 스스로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가지는 일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토크쇼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상이몽’에서는 작년 사례발표를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 및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지역별로 준비하고, 캠프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 2 모집 및 선발

**참여자 모집** 상상학교 참가자 중 후속 단계에 참여할 청소년 모집

**심사 및 선발**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발표** 학교 및 개별통보, 내-일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후속 활동 안내

#### 선발 기준

참여성(40)	공동체성(30)	창의성(30)
단계별 활동에 모두 참여 가능한 청소년	팀프로젝트에 흥미 있는 청소년	창직활동과 기획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자기-주도적으로 활동 가능한 청소년	또래/학교/지역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청소년	창의적인 주제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있는 청소년		

### 3 진행 내용

오프닝 캠프 : 2017년도 내-일상상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교류

중간공유워크숍 : 팀 프로젝트 중간과정 공유 및 피드백

결과공유워크숍 : 팀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

### 1 목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과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논리와 사고를 키우는 워크숍

노동에 대한 의미와 노동의 역사를 통해 노동의 왜곡과 노동권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갖고, 노동법에 따라 인권, 정당한 처우,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있다는 사실을 습득한다.

사회적 평등의 정의와 불평등의 원인,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권 등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 2 대상

상상캠프에 참여한 청소년

### 3 진행 주제

1회차 노동권 그리고 노동의 역사, 불평등

2회차 노동의 의미와 가치

3회차 노동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4회차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5회차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

6회차 어떤 삶을 살 것인가?

### 4 진행 일정 및 장소

**일정** 6회차 진행 또는 2일의 워크숍으로 진행(예시 : 8월 3주차~10월 1주차)

**장소**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 5 진행 시 참조 사항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원인분석, 조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일방적인 전달식 학습보다, 주제에 대한 소개, 청소년들이 토론하고, 안을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노동,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6 내-일생각워크숍 활동 사진

###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 생각과 학습하기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발표



## 7 내-일생각워크숍 실무 평가

현장실습생이 자살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언론에 다뤄지지 않고 묻혀지는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을까? 처음 경험하는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고, 젊음을 이용 당하고, 막연하게 불안하다면... 청소년들에게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와 노동인권이 분리될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청소년의 교육이 펼쳐지는 학교현장, 일을 경험하는 현장실습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왜 들어갈 수 밖에 없을까?

학교는 노동현장과 분리된 공간이 아닌 사회의 일부, 동시에 직업을 갖게 될 이들이 자신의 일을 삶속에서 가치있게 해나갈 노동자가 될 준비를 하게끔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서열과 성적, 직업과 소득에 따라 위계질서와 권력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하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듦으로 결국 안정적인 직업이 가장 우선시되는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만들어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노동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 노동의 경험과 그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눠본 일이 없다. 일하는 청소년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게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을 통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경험하며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노동인권교육으로 연결해나가고자 하였다. 부당함에 맞대응 할 수 있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작성자 : 전주YMCA 손유주영



## 4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 1 프로젝트 구성

‘계획하기 → 실행하기 → 성찰하기’의 단계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이 여러 번의 워크숍과 회의과정으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변화 욕구나 성취과제 등을 탐색한 후 하고 싶은 아이디어 공유시간을 거쳐 팀을 구성한다. 하고 싶은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 외에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란 과제를 엮어 청소년들은 각자의 팀 안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계획하기 질문

우리가 해결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것을 하기 원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공감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팀별로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으로 본 단계에서는 각 팀의 자율성이 가장 큰 요소이다. 팀 간 활동상황 공유 및 보완사항 논의를 위한 담당 실무자 전체 모임을 기간 중 2회 진행한다. 각 팀은 책정된 프로젝트비를 가지고 진행비와 활동비로 사용하고, 팀별 필요 정도에 따라 담당 멘토가 조력한다. 지역별로 ‘중간공유워크숍’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여 각 팀의 진행 중인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 실행하기 질문

이 과정은 나와 우리와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계획    실행    성찰

마지막 ‘성찰하기’ 단계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전체 활동을 마친 후 자신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결과공유회’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각 팀의 활동 진행 과정과 결과, 각자가 성장한 부분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팀 내에서 팀 활동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에 관심을 두고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활동가들, 참여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 청소년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결과공유회가 청소년 참여자들 외에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했던 학교 선생님, 멘토, 사람책, 봉사자, 강사 등이 서로의 역할과 경험을 소개하고 소감을 나눈다면, 일 년의 과정을 모두가 축하하는 감동적인 졸업식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과 연계된 지역의 모든 진정성 있는 스토리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같은 지역과 함께하는 장기적이고 자치적인 청소년 진로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된다.

#### 성찰하기 질문

이 과정을 통해 발견한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이 과정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나?



## 2 프로젝트 사례

### 얼렁뚱땅 적정기술

계획

>>>

실행

>>>

성찰



#### 기획 회의 및 워크숍

마인드맵 기법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적정기술에 대한 의견이 다수로 결정되었다.

#### 멘토 탐방 및 기술훈련

적정기술 관련 멘토를 모시고 실습을 하였다. 로켓스토브를 만들기(2주) 가스통을 이용한 난로 만들기(3주)

#### 적정기술 활용한 물품 제작

청소년문화제에서 우리가 만든 난로로 쥐포 구워 주기, 난로제공이 가능했다. 향후 로켓 스토브와 난로를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계획

>>>

실행

>>>

성찰



#### 기획 회의 및 워크숍

지속가능한 마을, 어르신과 청소년이 살수 있는 장수의 미래를 그려보며 사회적 경제를 떠올렸다.

#### 수없이 많은 회의

마을을 찾아가고 탐방 활동을 할 때마다 많은 생각과 서로의 이야기 나눔이 필요했다.

#### 공동체 및 마을 탐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과소화 마을 등을 탐방하며 사회적 경제의 사례들을 경험하였고, 마을을 탐방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프로젝트 실행

지역축제에서 ‘좋은일찾기’ 보드게임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파, 진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일’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마을 탐방 활동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다.

계획

>>>

실행

>>>

성찰



### 좋은 일은 무엇일까

직업의 미래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꿈꿔볼 수는 없을까? 좋은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의 연결은? 좋은 일을 만드는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 로컬푸드를 만나는 사회적 경제

진안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를 체험해보았다. 한번을 나가기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습득, 판매 전략 세우기 등 할 일은 참 많았다.

### 일의 가치

수익의 사회 환원, 농촌 경제와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 그리고 청소년들의 탐방을 프로젝트 보고서로 만들었다.

계획

>>>

실행

>>>

성찰



### 기획 회의 및 워크숍

학교에만 갇힌 청소년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모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청소년 노동인권... 참정권... 평화운동.... 2017년에도 배워야 할 것이, 실천해야 할 것이 많다.

###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지금의 시민

전북청소년박람회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알리고, 18세 참정권 참여를 약속하는 나만의 배지 만들기과 서명운동 전개하였다.

###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금, 여기, 나!

학습은 배우는 것과 실천이 함께한다. 기억하기 행동하기 위해, 민주주의+평화 감수성 워크숍을 통해 권력과 권리, 나와 서로의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계획

>>>

실행

>>>

성찰



세부 사업 내용

별별상상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당면한 실습과 취업 등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토론했다. 우리의 고민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의는 여러번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기획 및 준비 과정도 자치와 배움 콘서트 진행팀, 홍보와 영상팀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비가 들어갔다. 콘서트 진행을 준비하며 우리 지역 청년들의 1% 삶 나눔 특강에도 참여하였다.

5지고 G리는 청소년 토크콘서트 '커밍아웃' '졸업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을 주제로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의 꿈과 고민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기획 및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주었다.

계획

>>>

실행

>>>

성찰



### 기획 회의 및 워크숍

위안부 소녀상 알리기 초기의 계획이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청소년 활동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 한반도 평화 캠페인 진행

우리에게 와닿는 평화를 알기 위해 학습했다. 또한, 남북관계 위기와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풍남 광장에서 평화캠페인과 서명운동, 차 나눔을 하였다.

### '변화'를 꿈꾸는 탐방

청소년들이 평화캠페인을 지역에서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 배지를 디자인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 성수동 주변의 청년 기획자들의 가게와 단체를 방문하고 인터뷰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 첨부 1 상상학교 사람책 선정기준 및 공동 질문

### 사람책 선정 기준

1) 사람책의 선정기준은 가치적으로 ‘평화, 나눔, 행복한 삶,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실천이며, 그 분야에서 일정한 삶의 익숙함이 있는 분으로 선정하였으면 한다. 청년 대상일 경우에는 여러 실험과 도전, 대안적 삶도 의미가 있겠으나, 청소년 대상으로 사람 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실험하고 있는 부분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스럽다. 사람책은 행복하게 살며, 그 분야에 공익을 추구하며 일정한 삶의 업적이 있으며, 전달력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지역사회에서 자기 분야에 창의적이며 상상력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과 선배들을 사람책으로 참여하여 향후 상상프로젝트 진행 시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사람책의 짧은 만남을 통해 충분한 교감을 쌓기가 어려우며,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지방)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지역사회에서도 잘 살아 갈 수 있다는 상상력을 키우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상상과 창의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살려 청소년과 호흡할 수 있는 분들을 사람책으로 선정하였으면 한다. 또래 청소년 중에서 사회적 참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사람책으로 나설 수도 있으며,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대안학교 출신의 청년도 좋은 사람책이라 생각된다. 사람책은 사회적 지위, 경력, 나이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사람책 선정 기준은 다양하다. 청소년이 원하는 사람책일수도 있고, 주관하는 지도자가 의식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며, 그 관점도 다양할 수 있다. 위의 1, 2, 3 의 사람책 선정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청소년과 호흡할 수 있고,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사람책 공동 질문(예시)

하는 일 :

이름 :

공통질문

1.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3. 현재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4. 지금 하는 일은 만족하세요?  
보람이 있거나, 일하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5.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6.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7. 기억에 남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8.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10.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 첨부 2 상상학교 사람책으로 활동할 때 유의할 점

1

사람책이 될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걸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당신이 대표할 편견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독자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나 정보, 예를 들어 통계 및 연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있는 그대로 당신을 보여주라. 솔직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대출자의 말을 경청하도록 한다.

4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거나 특정 캐릭터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라. 독자들은 금방 알아차릴 것이고 당신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5

당신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을 독자들과 공유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지만 질문이 너무 사적인 경우, 언제든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6

시간을 확인하라. 대출 시간은 정해져 있다. 서론을 이야기하는 중에 대출시간이 마감될 수도 있다.

7

휴먼라이브러리에 참여하는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들이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만나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경험이었는지 등 질문을 통해 독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라. 이러한 정보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당신을 대출한 독자들은 각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출 이유도 제각각일 것이다. “왜 저를 대출하셨습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9

당신은 책이고 상대방은 독자이다. 책은 독자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지만, 주어진 대출시간의 주인은 바로 사람책이다. 대화의 주도권을 독자에게 빼앗기지 마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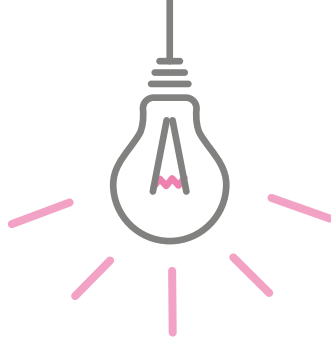
독자들은 당신이 대표하는 편견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사회문제의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며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만, 되도록 침착하고 이해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한다.

11

휴먼라이브러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람책을 대출하기도 한다. 이런 독자들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 인생에 대한 결정은 그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당신의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참고 :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매뉴얼대로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자가 먼저 상상하고, 청소년들의 역동성과 자치성을 믿고 신뢰하며 존중하여야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가이드북의 역할은 청소년의 진로 활동에 상상의 주춧돌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프로젝트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설명될 수 없습니다. 참여청소년과 지도자의 역동적 활동과 상상력에 의해 창조적으로 진화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삶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사업의 성과와 목표 달성에 애쓰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고리타분함을 열어놓고 청소년들을 믿으며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역할이 소중한입니다.

지도자는 청소년 세계의 중심에 서 있고자 노력하면 됩니다.